

# 내 인생을 바꾼 도서관

글 | 허이영

수원청소년문화센터 한아름도서관  
제10회 동서커피문학상 수필부문 '바지랑대' 금상 수상  
youngheq@hanmail.net

도서관 포커스

하늘이 높다든 것은 새가 높이 날 수 있다는 방증이며, 못다 이룬 꿈이 있다는 것은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어 젊다는 증거다. 꿈이 있었다. 삶이 무엇인지 흐릿하게 윤곽이 잡히는 즈음하여 글쟁이가 되어 보겠었던 꿈. 그런 막연한 꿈에 대한 지도 한 장 가슴에 잘 말아 넣고 다녔기에 조금 덜 흔들리고, 책을 멀리하지 않고 살지 않았나 싶다.

가슴에 무언가를 품고 있었으므로 식물이 빛을 향해 나아가듯 필자의 더듬이가 항상 그것을 향해 있었다. 2010년 봄 자주 드나들던 집 근처 도서관 입구에 '작가와 함께하는 글쓰기 교실' 수강생 모집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새로운 일을 선택 결정하는 성격이 아님에도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이 글쓰기 교실 수강 신청을 했다. 다양한 분야의 수강생 열 명쯤이 모여 5월부터 11월까지 수업을 했다. 평일에는 논술 선생님이로, 매주 토요일에는 글을 배우는 수강생으로 일주일 동안 쓴 글을 선생님께 첨삭을 받기도 하고 맞춤법, 띄어쓰기와 같은 이론수업도 병행했다. 그런 토요일은 설렘이었다. 꾸준히 써오던 글이 아니었기에 처음에는 토막글을 써가는 일이 쉽지 않았다. 한 편의 글을 완성하기 위해 새벽까

지 잠 못 이루는 불면의 시간도 고통이 아니라 행복이었다. 필자만을 위해 집중하는 적요의 새벽 시간이 오롯이 필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았다. 글을 잘 쓰고 못 쓰고를 떠나서 필자가 원하던 일을 하고 있다는 것, 함께 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사십 대라는 나이, 인생의 절반쯤에서 문득 드는 공허함, 누구를 위해 살았고, 필자의 위치는 어디인지에 대한 물음으로 방황했으나 답을 찾지 못했던 시기에 그 자문에 대한 답과 함께 안정을 찾아다 준 것이 글쓰기 교실이었다. 흔들리던 일상이 점차 평온해졌다. 필자의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더 관대해지고 푸근해질 수 있었고 마흔둘이라는 나이에 조바심 나지 않았다.

7월 말 즈음 글쓰기 교실 담당하는 직원이 동서커피문학상이 8월 말까지 공모하는데 응모해보지 않겠느냐고 물어왔다. 글에 관심 있는 주부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응모해 보리라 염두에 두던 곳이었다. 별 두려움도 욕심도 없이 응모작 3편을 한 달 동안 준비하기 시작했다. 선생님의 첨삭 도움도 받았고 나름 수필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틈틈이 도

※ 집필자 요청에 의해 사진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서관에 가서 좋은 수필을 찾아 읽고, 필사를 하고, 인터넷을 통해 수상수필 평을 읽으며 좋은 글에 대한 안목을 조금씩 키워 나갔다. 그중 가장 신선한 충격을 준 글은 이상의 『권태』라는 수필이었다. 이 글처럼 무기력해져서 며칠을 숨털 하나 움직이기 싫은 권태의 경험으로 글의 힘을 경험했다.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발견하지 못한 필자 안의 또 다른 필자를 보았다. 필자 속에 따리를 틀고 있던 열정과 집중력이었다. 매일 새벽까지 반복되는 글과의 씨름이 지루하지 않았고 글을 읽으면 작가의 마음이 지면을 타고 오롯이 전달되어 눈꺼풀이 무겁지 않았다. 아이들 수업을 해야 했으므로 시간이 그리 여유롭지 못했다. 밥술에 밥을 안치고는 부엌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앞치마에서 원고를 꺼내 다시 글을 읽고 퇴고를 했다. 퇴고 작업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화장실, 버스 안, 커피숍, 시간 여유가 있을 때마다 들고 다니며 했다. 새로운 단어를 찾아내고 문맥이 매끄러워질 때마다 발끝부터 온몸 짜릿하게 전해오는 전율은 통쾌했다. 공모 마지막 날까지 퇴고를 하고 필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에 미련 없이 글을 전송했다.

수상식 이후 몇 군데 수필 계간지에서 원고 청탁이 있었고, 작가들 모임에도 몇 번 참석했다. 글로만 뵈었던 작가들을 면전에서 보는 일이 잘 믿어지지 않았다. 이십 대 이상과도 같았던 김남조 선생님이 백발이 되어 불편하신 다리 때문에 지팡이를 짚고 계신 모습을 뵈고는 부축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옆자리까지 갔다가 되돌아오기도 했다. 김홍신 선생님은 손이 참 따뜻한 분이셨다. 옆자리에 앉은 선생님께서 필자가 어색한 자리임을 눈치 채시고 먼저 말문을 터 주셨다. “요즘 글 열심히 쓰고 계시죠. 좋은 글 많이 쓰세요.”라며 차가운 필자의 손을 꼭 쥐어 주셨다. 그런 자리들은 새로운 경험이었으나 다른 차원의 세상처럼 스며들기 힘든 자리였다. 등단 새내기가 치러야 하는 통과 의례쯤으로 생각하지만 이방인처럼 낯설기만 해 아직도 꺼려진다.

시간이 흐를수록 부족한 것이 많음을 넘치게 느낀다. 그래서 사이버대학교 문예창작학과에 편입해 다시 공부를 시작해 4학기째다. 중·고등학생의 엄마로, 아내로, 선생님이요, 학생으로, 마흔여섯의 필자로 살아가는 매일이 숨 가쁘다. 하지만 빼듯한 시간을 쪼개 일주일에 한 번은 시 수업을 위해 서울로 향한다. 하루 온전하게 필자를 위해 살아가는 날이 있어 나머지 6일이 힘들지 않다. 이제 다시 시작된 꿈을 위해 매일 열두 시가 지나면 필자를 위해 사는 시간으로 돌아간다. 일 년이 걸릴지 십 년이 걸릴지 모르나 시 등단을 위해 한걸음 나아가는 중이다.

씨앗도 너무 오래 땅속에 묻혀 있으면 썩는 법이다. 가슴에 묻어 둔 꿈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세상 속으로 꺼내기를. 어느 시인의 시 구절처럼 오늘이 내 생애 가장 젊은 날이므로……. (가)

편집자주

이번 도서관포커스에서는 '내 인생을 바꾼 도서관'이라는 큰 주제를 다루었다. 도서관을 통해 이용자들의 삶이 더욱 행복해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고자 했으며, 우리 협회에서 주관했던 '도서관, 문학과 문학작가 파견사업'의 프로그램에 강사로 참여한 김수인 작가의 글과 프로그램 참가자에서 작가로 등단한 허이영님의 글을 소개하였다.